

향기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나의 소중한 마음을 향기에 담아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미지에 맞춰 향기를 발산한다면 효과는 분명히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향기마케팅이라는 것도 대두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감(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그 중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즐거울 때도 있다.

그러나 오감 중에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감각이 있다. 대부분의 감각이라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먹고, 만져보면 알 수 있지만 냄새를 맡는 후각은 앞에 열거한 것들처럼 실체가 없어 볼 수가 없는 불편함과 함께 이것을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술 또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향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향기나는 제품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향수가 인기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향수는 뿌리고 나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성질이 있어





◆ 세향하이텍에서
제작한 각종 향기 제품들.

서 오랫동안 향기를 지킬 수 있는 보향기술이 중요하다.

최근 다양한 마케팅기법들이 출현해 감각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나 경쟁제품간 차별화 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향기인쇄에 의한 마케팅이 아닐까 한다.

최근 우리 주위에는 향기나는 명함, 부채, 책, 책갈피, 포스트잇, 크리너, 청첩장 등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한 쪽에서 조용히 자기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향기를 발산함으로써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도 기억하게 해준다.

향기인쇄는 우선 향기나는 고분자나 화학물질을 응용해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이것을 캡슐화해서 인쇄잉크와 함께 넣어서 인쇄할 것인지, 아니면 종이에 향기를 코팅해 인쇄하거나 인쇄된 종이 위에 향기를 코팅하는 것이다.

캡슐화된 향기는 인쇄잉크로서 별도의 장치없이 간단하게 바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지만, 캡슐이 프레스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접촉 등에 의한 마찰이 있어야 향기가 발산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에는 무리가 따른다.

반면에 향기코팅은 인쇄용지에 미리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인쇄하거나 인쇄 후 코팅을 하기 때문에 보향기술에 따라 장기간 지속해서 향기를 발산할 수 있지만, 고도의 보향기술과 코팅기술, 그리고 코팅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어쨌든 향기인쇄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후각적인 향기의 제공으로 인쇄업계에서는 무시 못할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윤재호부장〉